

할머니의 기억력

기억력 상실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한 68세 한국 여인은 자신의 소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병을 ‘노인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도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같은 배려가 진료나 처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성 치매는 치유될 수 없다, 대처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결론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노인성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원인들이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질병”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원인들 중 일부는 치유되거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김수연씨 할머니의 기억력 감퇴나 기이한 행동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몇몇 질병들은 치유될 수 없기도 하지만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중세 악화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씨는 매주 할머니를 모시고 식품점에 갈때마다 창피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씨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집에 10봉지나 있는 국수를 10봉지나 더 사고, 때로는 집에 돌아갈 때 차 타기를 거부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어 할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가까이에 산다면 할머니를 보살피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할머니에게는 20마일 떨어진 서버브에 살고 있는 김씨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김씨는 세자녀를 둔 주부로 매일 일하는 직업 여성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안위를 위해 무엇이든지 필사적으로 합니다.

하루는 간호사로 있는 친구가 김씨에게 수많은 요인들이 기억력 감퇴를 비롯, 기이한 행동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또 그 친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김씨의 할머니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무엇이 기억력 감퇴를 초래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혈액 순환, 혈당 및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요인들 때문에 할머니는 그동안 심한 혼돈과 기억력 감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회소식은 할머니를 위한 처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할머니의 기억 감퇴, 혼돈 증세는 치유됐고 김씨는 할머니집을 왕복해야 하는 걱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만약 할머니의 뇌에 생긴 병이 기억력 감퇴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역시 치유가 가능했을까요? 사실상, 할머니가 겪은 혼돈 증세가 일종의 치매에서 연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도 병의 진전을 둔화시킬 수 있는 처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이 처방마저 불가능했다해도 할머니를 도울 또 다른 부차적인 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각기 다른 원인들이 기억력 감퇴와 기이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들 원인중 일부는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력 감퇴나 기이한 행동의 원인, 적절한 처방 등을 연구한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치유 여부 조차 알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